

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 도약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 2031년까지 1조6084억원 투입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인프라 구축

고흥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우주발사체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받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 1%인 우주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 등 개정안을 시행,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경남과 대전도 각각 위성과 연구·인력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반복발사를 2027년까지 4회 진행한다.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해 2030년부터 3회 발사하며, 이후에도 다양한 민간위성을 발사하게 된다. 누리호 반복발사 사업(한국형발사체 고도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873억여원을 투입해 4기를 발사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민간 발사체 관련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60%로 18년이나 뒤진 점을 감안, 앵커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 2031년까지 1조6084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사업은 국가산단 조성, 민간발사장·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업 시험평가·인증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능이 집적화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고체발사 지원 복합우주센터 및 우주시험센터 등 구축, 국민의 우주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캠프플렉스 조성

등이다.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는 2028년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380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172만9000㎡ 규모로, 1공구는 액체발사체 기반, 2공구는 고체발사체 기반 제조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역 소재·부품기업이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토록 우주항공 소재·부품 다각화사업과, 우주공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연구도 2030년까지 진행한다. 스타트업, 창업벤처기업 등 지원을 위한 임대형 생산동 및 지식산업센터 구축, 발사체 사이언스 캠프플렉스의 연구자, 관광객을 위한 연수시설(리조트) 유치도 추진한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31년까지 10개 이상의 발사체 앵커기업 유치를 2조666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138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785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경남과 연계해 남해안 남중권에 초광역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전남은 발사체 중심, 경남은 위성 중심 클러스터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국가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7개 시·군 고로쇠 채취·판매 시작

126만 3천 l 생산 계획

전남도가 지난 17일 광양 백운산고로쇠 수액을 시작으로 7개 시·군에서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사진>

고로쇠는 어원이 '뺨에 이로운 물(裨利水)'에서 비롯됐다는 말처럼 수액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날씨에 따라 채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1-2월에만 맛볼 수 있는 봄 숲의 선물로 불린다.

고로쇠 수액은 각종 미네랄,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고 칼슘은 물보다 40배 이상 함유돼 골다공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 면역력 강화, 숙취 해소, 피부 미용 효과 등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고로쇠 수액을 찾고 있다.

전남도는 생산된 고로쇠 수액의 신뢰도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등록, 위생적 채취(자외선 살균), 소포장 판매(유통) 등 품질관리와 함께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광양, 구례, 장성 등 7개 시·군 17만 469그루에서 126만 3천 리터를 생산



할 계획이다. 가격은 1.5리터 한 통에 5000원, 다양한 포장 규격(0.5리터, 1.5리터, 4.5리터, 9리터, 18리터)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판매처로 문의 후 필요에 따라 구입하면 된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고로쇠 임가를 위한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제철맞은 고로쇠 수액을 친지와 부모님 건강 선물로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세계 주목하는 힐링 명소로

4월 개막 박람회 막바지 준비 한창

전남도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정원에 삼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입장권 약 31만 장이 사전 예매되며 개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치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부터 동천을 따라 도심권역으로 확장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휴식할 수 있는 힐링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기획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케이(K)-정원에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박람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가의 날' 행사에 17개

국가의 도시가 참여 의사를 내비쳤다.

이색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가정원 안에서 국내 최고 셰프가 제공하는 만찬과 함께 가는 클래식, 가든 시네마를 즐길 수 있는 숙박 프로그램인 '가든스테이'도 준비했다. 또 신체 면역력 향상,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 치유법인 어싱길(맨발걷기)을 박람회장 전역에 걸쳐 8개 코스 12km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고려 초 순천과 보성, 곡성, 구례를 연결하는 섬진강 수계의 주요 거점이었던 해동창 설치 기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가정원과 도시를 연결하는 동천 뱃길을 복원해 국가정원 호수까지 2.5km를 체험하는 정원드림호가 새롭게 마련됐다. 기반공사는 대부분 완료됐으며 박람회 주요 무대인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3월까지 휴장하고 세부 연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복지기동대·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전남도가 2023년을 '세계로 뚫어주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원년으로 선포하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공공산후조리원, 천원 여객선 등 도민 행복시책 확대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처음으로 민·관·순수 자원봉사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출범, 취약계층의 전동, 수도, 청물, 전자제품의 오작동 등 생활불편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7만2000여 가구에 11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하고 기동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 선정에 주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옴 행복시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32억원 증액된 8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또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 서비스를 위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가점별 대상지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3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전남도 총 248억원을 들여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광역 시·도 중 전남도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미 설치된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등 5개소에 3개소가 추가되면 전남 모든 지역에서 3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전남도 난방비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등 264억여원

전남도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난방비 26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경제위기, 가뭄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민생대책의 하나로, 홀로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5만5600가구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원씩 총 111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9212개소에 난방비 148억원을 지원해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마련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시설 외에 전남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해 도내 879개소 모든 시설에 5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총당하도록 시·군에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차에 걸친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공동체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대, 지역 상생발전 혁신체제 구축

담양군·군의회와 업무협약

전남도립대가 최근 대학교육 혁신 성과 확산 공유회를 개최해 대학교육 혁신 및 평생직업교육 사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공유회에는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 이병호 담양군수,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이규형 전남도의원,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기본 좋은 동행, 함께 가는 길 전남도립대학교'를 주제로 진행된 성과공유회 1부에선 전남도립대학·담양군·담양군의회 상생협약과 대학교육 혁신사업 및 평생직업교육 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립대와 담양군, 담양군의회는 협약을 통해 지역 혁신 연계 협력사업 발굴, 지역 인재 육성 발굴 및 지원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대학은 또 교육부에서 확대 예정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등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

하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이어 우수 산학협력 가족회사와 평생직업교육 협력 강화에 기여한 나주시, 장흥군, 영광군에 표창과 공로패를 전달했다.

2부에선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 '전남도립대학교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등 교직원 특강 및 연수와 대학 혁신 방안에 대한 교직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또 교육 성과 공유를 위한 재학생과 평생직업교육 과정 수료생의 직무시연, 작품전시도 함께 열렸다.

전남도립대학교와 담양군은 지역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 후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역 공헌을 위한 역할 강화, 담양 군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박병호 총장은 "지역 상생발전 혁신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 등 문제점 극복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돈돈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